

09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September 2024
vol. 274

Autumn Issue



TOD'S



Cartier



BARÉNIA



향기를 머금은 피부



omegawatches.com



SEAMASTER AQUA TERRA
Co-Axial Master Chronometer

HYUN BIN'S CHOICE

현빈의 오메가 시계는 그의 연기력을 돋보이게 합니다. 현빈이 착용한 41mm 사이즈의 씨마스터 아쿠아테라는 클래식한 블랙 다이얼 모델로 34mm, 38mm 사이즈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씨마스터 아쿠아 테라는 오메가의 유서 깊은 해양 탐험의 전통을 기념하는 타임피스로 스위스 시계 산업의 최고 수준으로 인증된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로 구동됩니다.



갤러리아 명품관 EAST 광교점 롯데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인천터미널점 현대 목동점
더현대서울점 무역센터점 대구점 신세계 본점 강남점 타임스퀘어점 대전 아트앤사이언스점 대구점

Contents

INCOMPARABLE ROMANCE

- 10_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12_SELECTION** 필드에서 러블리한 무드를 더하는 것은 물론 데일리 웨어에도 제격인 골프 웨어.
- 13_TIME TO SHINE** 캐주얼한 디자인에 다이아몬드를 더해 럭셔리함과 쿨함을 모두 잡은 여성 워치.
- 15_MATCH POINT** 다양한 소재로 아름다운주얼리를 탄생시키기까지 기울인 메종의 창의적 노력이 엿보이는주얼리 셀렉션.
- 16_예술로 뜨거워진 부산의 여름** 부산비엔날레가 예년보다 일찍 개막을 알렸다. 방향이 겹쳐 부산 여행과 비엔날레 방문을 함께 계획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실제로 비엔날레 개막식 바로 다음 날,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장에는 유독 연인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다수 볼 수 있었다. 비엔날레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행사였던가? 시민들의 축제 웃음 입은 비엔날레 풍경이 낯설지만 반가웠다.
- 18_호모 플라스틱쿠스의 각성을 기다리는 지구** 지구상에서 제일 높은 산과 가장 깊은 해저까지 침투할 정도로 '플라스틱 친화인'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불필요한 쓰레기를 생산해내며 디스토피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실천적 각성에 계기를 제공할 만한 전시를 만나봤다.



이탈리언 럭셔리 브랜드 토즈(Tods)는 2024 F/W 시즌,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테오 람부리니의 첫 컬렉션을 선보인다. 모델이 착용한 제품은 깔끔한 선과 에센셜한 무드를 강조한 다르세나(Darsena) 백과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돋보이는 더블 칼라 셔츠.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우아함의 절정을 보여준다. 문의 02-3448-8233

stylechosun.com
instagram.com/stylechosun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 부산 미술계의 복합 문화 공간 F1963에 자리한 현대 미술스튜디오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새로운 발견(Plastic: Remaking Our World)〉展이다. 현대자동차와 독일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이 협업한 전시로 내년 5월 25일까지.
- 20_GET THE LIST** 지금 바로 함께해야 할 핫 아이템.
- 22_BAG UP!** 2024 가을 스타일, 잇 백(it bag)으로 완성하다.
- 30_TIME IN ART** 프리즈(Frieze)와의 예술적 만남을 이어가는 브레게가 9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프리즈 서울에 참여한다. 큐레이터 젠 엘리스(Jenn Ellis)와 협업해 '포스트 아틀란티카(Post Atlantica)'를 선보이는데, 이 작품은 고기후학과의 예술적 대화를 담아 더욱 특별하다.
- 32_HONOR OF CRAFTSMANSHIP** 올해도 한국 공예 후원 사업에 헌신하는 재단법인 예술이 사넬과 '예술x사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번에도 내공 깊은 장인과 젊은 공예인을 선정하고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장인 정신과 예술의 가치를 드높인다.
- 34_TASTE OF EUROPE** 유럽연합은 진짜 유럽의 컬러를 맞보다!(Colours by Europe, Tastes of Excellence!) 캠페인을 전개한다. 오랜 역사를 지닌 유럽연합 식음료의 진미를 발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으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안 쿠브레 동교점을 방문하면 유럽연합에서 생산한 농식품의 특성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 38_EDITOR'S PICK** 지금은 피부가 가장 예민해지는 계절, 편집부가 엄선한 뷰티 리스트로 피부에 생기를 더해보자.

© GRAFF.COM



G R A F F

Style 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 성장민 sjm@chosun.com 윤자경 yjk@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신정민 sjn@chosun.com
 디자인 나는컴퍼니 교열 이정현 수정 박민정 광고·마케팅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jh5567@chosun.com
 유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현기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해·재판 덕일 인쇄 타라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퍼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외로 발행됩니다.



GETT BELT

랄프 로렌이 고급스러운 스피릿 카프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해 클래식함을 배가해줄 벨트를 출시했다. 엔틱한 무드를 선사하는 벨트 버클을 살펴보면 시그니처 'RL' 로고와 반복되는 곡선을 패턴으로 담아낸 브라스 소재의 인그레이브 디테일을 살렸고, 오버사이즈로 제작한 것이 특징. 인타르시아 기법을 더한 기하학적인 텍스타일 디자인의 허리띠는 부드러운 울오버 레이저 카프 스킨 소재를 사용했으며, 가자자리에 브라운 컬러 레이스 장식을 적용했다. 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 트렌치코트 위 또는 얇은 니트 톱에 액세서리로 레이어드해 스타일링할 수 있다. 2백70만원대. 문의 02-3467-6560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Garden of Dreams

반클리프 아펠의 레이디 아펠 브리즈 데페(Lady Arpels Brise d'Ete) 워치는 메종이 창립된 순간부터 영감을 선사하는 자연의 자연스러움에 경의를 표하는 동시에, 여름 아침의 싱그러움을 표현한 작품이다. 2024 워치스 & 워드에서 선보였으며, 시간을 표시하기 위해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 소재를 바탕으로 플라그-아-주르 에나멜 기법을 적용해 나비 모티프를 완성했다. 온-디멘드 애니메이션 모듈을 통해 나비의 날개에 생명력을 불어넣었으며,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38mm 케이스가 심플한 멋을 더한다. 셀프 와인딩 메카니컬 무브먼트로 구동한다. 문의 1877-4128



새로운 아이콘의 탄생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토즈가 2024 F/W 시즌을 맞아 디아이 폴리오 백을 공개했다. 토즈의 새로운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테오 탐부리니가 첫선을 보인 백으로, 오직 가죽 소재로 제작한 하우스의 장인 정신과 그의 현대적이고 세련된 감성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기존 폴리오 라인의 특징인 얇고 가벼운 카프 스킨으로 제작했으며, 어떤 물건을 담느냐에 따라 실루엣이 자유롭게 변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우스의 아이코닉한 림 공법으로 완성도를 높였으며, 과감하게 커팅한 백 정중앙에 타원형 로고를 더해 눈길을 사로잡는다. 내부에는 클러치 백이 내장되어 있어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하고, 사이즈는 미디엄과 맥시, 총 두 가지로 선보인다. 주말에 가까운 곳으로의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실용성은 물론 스타일까지 챙길 수 있는 디아이 폴리오 백과 함께해보자. 문의 02-3438-6008



Deep in the Blue

블루록 매력적인 블루 포인트 워치 & 주얼리 5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불가리 디바스 드림 워치 총 1.58캐럿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곡선 패턴의 다이얼과 옐리게이트 소재의 브레이슬릿으로 완성했다. 4천2백만원. 문의 02-6105-2120 소피카 다이아몬드 컬렉션 워치 오벌 타임 블루 다이얼로 대범한 디자인을 선보이며, 베젤과 리그에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1억5천9백70만원. 문의 02-3605-3390 프레드 탱 드 쉬크르 라피스 라줄리 링 위에 불룩한 카보숏 라피스 라줄리가 시원한 느낌을 자아내고,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더해 우아한 실루엣을 연출한다. 1천2백28만원. 문의 02-514-3721 다미아니 벨 에포크 링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로 포인트를 주었으며 빛나는 광채를 선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515-1924 포델라토 누도 리비에르 네크리스 총 59.5캐럿의 블루 토파즈 4개와 총 33.6캐럿의 블루 토파즈 3개가 조화를 이루며, 포인트로 함께 세팅한 3백35개의 화이트 다이아몬드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가격 미정. 문의 02-3143-9486 포토그래퍼 오현상 에디터 신정임



지금, 이곳에 가야 할 이유

그라프는 브랜드 스토리와 장인 정신이 깃든 팝업 샵을 롯데 에비뉴엘 잠실점 1층에 리뉴얼 오픈하며, 이를 통해 진귀한 다이아몬드로 제작한 브라이덜 컬렉션과 시그니처 컬렉션을 선보인다. 세계에서 가장 희소성 높은 다이아몬드를 확보할 수 있는 전문성, 커팅과 폴리싱 기술을 갖춘 그라프는 주얼리 제작 과정의 모든 단계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업계 내 독보적인 위치를 자랑한다. 또 고유의 미학과 섬세한 장인 정신의 조화로 매년 독보적인 주얼리 피스를 공개한다. 팝업 안쪽 인테리어에서는 시그니처 주얼리 컬렉션과 클래식한 브라이덜 주얼리 등 하우스를 상징하는 심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는 그라프의 헤리티지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주소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00, 롯데백화점 잠실점 에비뉴엘 1층 문의 02-2150-2320



DAILY WASTE



Next It Bag

샤를 드 노아유(Charles de Noailles)와 마라-로르 드 노이유(Marie-Laure de Noailles) 부부의 빌라 정원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샤넬의 2024 S/S 레드투웨이 컬렉션. 이번 컬렉션에는 옐리 컬러, 블랙 또는 핑크 트윈드 소재의 드레싱 가운과 다양한 컬러의 스트라이프 패턴 테리 소재 재킷이 등장한다. 이토록 경쾌한 룩들과 조화를 이루는 스트랩에 진주 악센트가 특징인 화이트 컬러의 미니 플랩 백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림 스킨으로 완성했으며, 전면의 CC 잠금장치 가 포인트다. 문의 080-805-9628



거칠어진 손을 효과적으로 케어해줄 핸드크림 4.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록시앙 코론 드 세레니티 솔리데리티 핸드크림 코론 드 세레니티 말락시 필로우 미스트 향을 담았으며, 시아버터 함유해 촉촉함을 선사한다. 30ml 1만6천원. 문의 02-2054-0500 논픽션 시트러스 핸드크림 미니 트리오 네올리 드림 비타민 E 성분으로 피부에 생기를 더해주며 네올리 드림, 오피온 알스, 심플 가든 등 총 세 가지 논픽션 대표 시트러스 향을 미니 사이즈 세트 출시했다. 15ml 1세트(3개) 2만9천원. 문의 1666-7891 오리베 너리싱 핸드크림 데저트랜드 스위트 아몬드, 메도 폼, 시아버터 성분을 포함한 크림 텍스처로, 건조하고 갈라진 피부에 보습감을 선사한다. 100ml 8만3천원. 문의 1644-4490 이슬 엘레오스 아로마틱 핸드 밤 시더 아틀라스, 피츨리, 클로브 버드 에센셜 오일을 배합한 성분으로 피부에 영양을 주며 우디-허브-스파이스 아로마 향이 조화를 이룬다. 75ml 3만9천원. 문의 1800-1987 포토그래퍼 오현상 에디터 신정임



EXHIBITION

My Unique Bag

유니크한 무드를 담은 백 키 링 3. (왼쪽부터 차례로) 브라운 컬러의 가죽 소재로 제작했으며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하는 아르카디 백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541-7443.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팔을 더했으며 스크래치에 강한 옐스 카프 스킨 소재의 백 참 2백29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미우미우 로고를 새긴 옐스카 포인트인 가죽 트럭 가격 미정 미우미우. 문의 02-541-7443. 퍼플, 핑크, 브라운 등 세 가지 컬러의 꽃 모티프가 조화를 이루며 러블리한 무드를 표현하는 플라워 참 55만원대 콜롬보. 문의 1600-0558. 포토그래퍼 오현상 인턴 에디터 김보민

The World of Valentin Loellmann

자연의 정기가 깃든 나무와 금속 소재를 조화시켜 특유의 곡선미를 지닌 예술적 가구를 디자인하는 작가 발렌틴 로엘만(Valentin Loellmann, b. 1983) 전시기 컬렉터를 디자인 갤러리 디에디트에서 열고 있다. 스위스 바젤 근교에서 태어나 네덜란드에 아를리에를 두고 활동하는 발렌틴 로엘만은 독특한 예술적 접근 방식과 철학을 토대로 '시적인' 가구를 빛어내는 작가로 평가된다. 불가능성, 주저함, 이질감, 미지의 것에서 영감을 받는다는 그는 물질과 감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나무의 온기를 황동, 스텝, 레진, 마블 소재와 융합해 남다른 오라를 품은 가구와 오브제를 만들어내는데, 모든 작품은 수작업으로 이뤄진다. 그리하여 작업을 하는 순간마다 새로운 영감을 얻고, 이는 다음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창조 과정으로 이어진다고. "나는 완벽한 가구를 제작하는 데 집중하기보다 매 순간을 표현하고, 각 작품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도구로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창조 의 순간이다." 자신만의 시적인 조형 언어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발렌틴 로엘만은 PAD 파리에서 '최고의 모던 디자인 조각상'(2013), PAD 런던에서 '최고의 컨템퍼러리 디자인 오브젝트상'(2017)을 받기도 했으며, 조소 작품처럼 여겨지는 작업으로 개인 수집가를 위한 실내 디자인 의뢰도 받고 있다고 한다. 전시는 디에디트(서울시 강남구 학동로33길 21) 1층에서 오는 10월 11일까지 개최되며, 예약제로 운영한다. 홈페이지 theedit.co.kr



Praise to Tradition

바세론 콘스탄틴이 고대 중국 문화에 찬사를 보내는 메티에 다르(Metiers d'Art) - 트리뷰트 투 테드니셔널 심볼즈 시리즈를 선보인다. 14세기에 등장한 중국의 전설적인 바닷가 절벽 모티프를 두 가지 스타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바세론 콘스탄틴 장인들이 이끈 고급박물관 전 부연구관원의 전문 연구 분야이며, 중국 황실의 전통문화에 속하는 파도에 휩싸인 절벽 이미지는 그 자체로 장엄함을 표현한다. 중국의 문화적 상징을 아름답게 승화시킨 다이얼은 18K 핑크 또는 화이트 골드로 제작한 직경 38mm 케이스에 탑재했으며, 칼라바 2460으로 중앙 아워 및 미니 핸즈를 구동한다. 문의 1877-4306





착용시 완벽한 그림자를 자랑하는 투어 레트로 24클로브 3인1용원 아디다스골프

스텝 배트 원로고 클럽 파우치에 골프공 3개와 우드티4개를 포함한 FF 골프 볼을 더 1백만원대 밴드.

스트랩 조절이 가능하여 넉넉한 수납공간을 자랑하는 올리브 컬러 그레고리 올림팩, 18x30.5x5(직)cm, 80만원 투미

눈을 보호하고 유니크한 특색을 완성해줄 반투명 프레임 안글라스 3인16천원 **올리브 by 아일 로톡스타카.**

낮은 무게 중심과 높은 광성으로 맨티(MOI)가 특징인 10MAXDS 드라이버 1백만원대 **테일러메이드**

이너 방풍 소재를 사용해 보온성을 높인 레터럴 이노라 윈드브레이크 35만9천원 **셀티.**

로즈 골드 소재에 볼드한 각면 디자인으로 완성한 아이스 큐브 컬렉션 링 5백80만원 **쇼파드.**

평균 골드 소재의 버블과 네이비 블루 투스타일 케이슬이 돋보이는 포스텐 브레이슬릿 3백50만원 **프레드.**

탈착 가능한 헤드 커버와 스트랩을 더한 나일론 소재 레나 스탠드백, 35x94x18(폭)cm, 75만원 **제이린드버그.**

for him Selection

라운드에서 최적의 요즘 날씨에 어울리는 남성 뉴 골프 웨어.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EUN SANG

천연 나파 가죽 소재로 여러 개의 카드 슬롯을 구성한 옐로 컬러 HIMMEL 로레토스 카드 케이스, 7.5x10cm, 22만원 **MCM.**

기요세 웨이브 패턴을 담은 블루 컬러 다이얼에 바켓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하여 마카와 배럴을 매치한 마린 크로노그래프 5529 1 9885673인원 **브레게.**

스크래치에 강한 엠비과 100% 천연 소가죽 소재를 미스안 레나 벨트 15만9천원 **아페세골프.**

측면에 아이코닉한 간치니 로고를 새긴 카시나 간치니 스니커즈 1백15만원 **페라가모.**

크롬 표층과 소재 브라운 컬러 나이드 포켓 포폴링 소스 1백30만원 **돌체앤가바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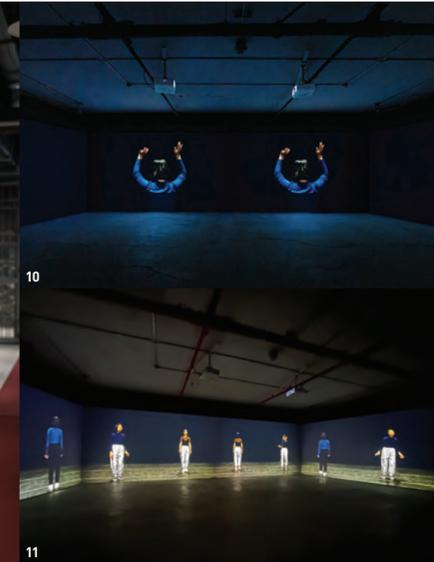
투미 02-539-8160 몽블레르 크레노볼 0030-8321-0794 에실로록스타카 02-501-4436 MCM 1600-1976 셀티 02-3471-8948 렌디 02-544-1925 프레드 02-514-3721 쇼파드 02-6905-3390 제이린드버그 02-547-2229 돌체앤가바나 02-3442-6888 아페세골프 1833-2250 브레게 02-6905-3571 아디다스골프 1588-8241 테일러메이드 02-6410-8051 페라가모 02-3430-7854



(왼쪽 위부터 차례대로) 반클리프 아펠 빈티지 알함브라 리버서블 링 새롭게 해석된 브랜드의 아이코닉 컬렉션 알함브라. 18K 옐로 골드 소재에 한쪽 면에는 기요세에 다이아몬드를, 다른 한쪽에는 블루 아게이트를 세팅해 여러 방식으로 착용 가능하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128 **부세론 파르트 블루 원 모티브 밴글** 서로 다른 네 가지 소재의 밴드가 모여 완성되는 하나의 주얼리 컬렉션으로 유명한 파르트 컬렉션의 밴글로 자유의 색인 블루 모티브를 더해 유쾌함을 준다. 18K 옐로 골드에 화이트 골드, 핑크 골드, 블루 세라믹, 그리고 총 0.11캐럿의 11개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6백만원대. 문의 02-6905-3322 **다올 피아주얼리 로즈 드 방 브레이슬릿** 아이코닉한 로즈 드 방 컬렉션을 다양한 소재의 믹스로 더 흥미롭고 화려하게 풀어낸 브레이슬릿. 화이트·옐로·핑크 골드에 다이아몬드 3.07캐럿과 머더오브필, 말라카이트, 라피스 라줄리, 옉닉스, 터퀴즈, 타이거즈 아이, 커널리언, 핑크 옉팔로 완성해 다채로움을 선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피아제 포제셔널 링** 가운데 밴드가 회전하는 디자인으로 경쾌함을 표현한 포제셔널 컬렉션의 링. 18K 화이트 골드 밴드에 총 약 2.36캐럿의 1백58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스퀘어 컷 블랙 세라믹을 세팅해 소재의 믹스를 보여준다. 3천3백만원대. 문의 1668-1874 **불가리 디바스 드림 링** 여성스럽고 세련된 스타일을 겸비한 부채 모티브가 특징인 디바스 드림 컬렉션의 링이다. 로즈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로 감싼 커널리언 스톤 2개를 세팅해 강렬하고 우아한 감성을 선사한다. 5백75만원. 문의 02-6105-2120 **까르띠에 클래쉬 드 까르띠에 이어링** 볼륨감 넘치는 과감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클래쉬 드 까르띠에 컬렉션의 이어링으로, 핑크 골드에 옉닉스를 매치하고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우아함을 더했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326 **에디터 성장민**

Match Point

다양한 소재로 아름다운 주얼리를 탄생시키기까지 매종이 기울인 창의적 노력이 엿보이는 주얼리 셀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2024부산비엔날레 예술로 뜨거워진 부산의 여름

부산비엔날레가 예년보다 일찍 개막을 알렸다. 프리즈 서울과 키아프 서울, 광주비엔날레 등 미술계 행사가 집중 포진해 있는 '미술 성수기' 9월이 아닌 8월로 일정을 변경한 것이다. 각 행사의 규모와 지역 간 거리를 생각하면, 미술 애호가 입장에서 비엔날레 일정을 앞당긴 것이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박향이 겹쳐 부산 여행과 비엔날레 방문을 함께 계획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실제로 비엔날레 개막식 바로 다음 날, 부산현대미술관 전시장에는 유독 연인과 가족 단위 관람객을 다수 볼 수 있었고, 2022년 독일 카셀 도쿠멘타에서 반유대주의 논란으로 작품이 철거된 인도네시아 작가 그룹 타링 파디(Taring Padi)의 '목판화 인쇄' 같은 전시 연계 프로그램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기다리기도 했다. 비엔날레가 이렇게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는 행사였던가? '시민들의 축제' 옷을 입은 비엔날레 풍경이 낯설지만 반가웠다.

해군에 입대할 바에는 해적이 되는 것이 낫다 (It's better to be a pirate than join the navy)는 스티브 잡스가 남긴 전설적인 문장이 떠오른다. 지키는 것이 익숙한 해군보다는 반항적이고 늘 새로운 것을 향해 가는 해적이 되라는 이 슬로건은, 애플을 넘어 실리콘밸리의 창업 정신을 대표하게 되었다. 올해 부산비엔날레는 어둠에서 보기(Seeing in the Dark)라는 주제 아래,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David Graeber)가 쓴 <해적 계몽주의>, 그리고 '불교의 깨달음'이라는 두 개념이 축을 이루고 있다. 데이비드 그레이버는 <해적 계몽주의>를 통해 다문화적인 해적이야말로 관용적이고 때로는 순수한 평등주의 사회를 실천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양성, 평등, 혼돈 등은 현대미술의 정신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키워드라서, 사실상 이번 비엔

1 2024부산비엔날레는 부산현대미술관, 한성1918, 부산근현대역사관, 초량재에서 열린다. 2 부산현대미술관 개막 행사에서는 작가 그룹 타링 파디가 관람객이 티셔츠에 목판화 인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미지 제공, 부산비엔날레
3, 4 이두원 작가가 부산현대미술관 야외에 설치한 캐라벤은 하나의 소유주다.



날래 작품을 명칭하게 관통하는 주제 선정이라 여기기에는 고개를 가우뚱하게 되었다. 오히려 스티브 잡스가 그러했듯, 해적들이 보여주는 개척 정신과 시류에 저항하는 정신이 올해 부산비엔날레에 흐르는 전체 맥락이라고 나름 이해해본다. 참어 작가 라인업은 인도네시아, 마다가스카르, 세네갈, 자메이카 등 주류가 아닌 국가와 문화, 그리고 종교인(승려), DJ, 약기 제작자, 안무가, 스트리트 아티스트 등 다양한 배경을 지닌 작가가 대부분을 이룬다. 경남 양산 통도사 성보 박물관장을 지낸 송진 스님이 높이 8m, 폭 2m에 달하는 대형 불화 2점을 선보였고, 정규 미술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돌며 작업하는 이두원 작가가 자유로운 회화 작업을 소개했다. 메인 스트림에서 모범적인 코스로 미술을 공부하지 않았지만, 본인만의 세계를 스스로 개척해온 작가들이다. 누구나 알 만한 스타 작가에 기대지 않고, 다채로운 작품을 통해 화두를 던지는 것이 비엔날레만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역할이 아니던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산
주제 의식도 중요하지만, 부산비엔날레의 모미 중 하나는 해운대, 광안리 등 관광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개발되고 주목받지 못한 원도심의 매력을 마치 보물찾기하듯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부산비엔날레는 부산의 근현대를

상징하는 공간을 발굴해 소개하고, 공간과 맥락에 따라 적절한 작품을 배치해 호평받기도 했다. 2020년에는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장소였던 중앙동의 40계단 주변을 전시장으로 활용해 관람객들이 부산의 구석구석을 볼 수 있었고, 지난 2022년에는 개항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때 중요한 항구로 기능했던 부산항의 제1부두, 근대 조선 산업의 중심지였던 영도를 소개했다. 올해는 개관 이래 비엔날레의 주무대가 되어온 부산현대미술관을 비롯해 중앙동의 문화 공간 한성1918, 구 한국은행 부산 본부였던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 지하, 부산의 근대화 화와 산업화 역사를 품은 초량동의 오래된 가옥 초량재를 활용하고 있다. 비엔날레 관람은 부산 원도심에 자리한 근대 건축물인 한성1918에서 시작했다. 한성1918은 1918년에 건축돼 한동안 한국 최초의 근대 은행인 한성은행 건물로 사용되다가 2000년대에 부산시에서 사들여 리모델링한 복합 문화 공간이다. 붉은 벽돌 건물 내부에 골조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는 이곳 1층에는 미국 출신 작가 니카 두브로브스키(Nika Dubrovsky), 프레드 모튼(Fred Moten) & 스테파노 하니(Stefano Harney) & 준 리(Zun Lee), 홍진철 작가의 작품이 설치되어 있다. 한성1918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부산근현대역사관 본관은 1963년에 준공돼 한때 한국은행 부산 본점으로 쓰이다가 2023년 12월 역사관으로 새롭게 개관했다. 이

미 2018년에 비엔날레 장소로 사용된 바 있는데, 올해는 부산 로컬 카페 브랜드인 '까사 부사노(Casa Busano)'가 옛 은행 로비를 화려하게 탈바꿈시켜놓았다. 더군다나 1층 구석 옛 계급고 자리에 골드 모양으로 포장한 디지털트를 진열하는 등 장소의 역사를 영리하게 차용해, 원도심에 갈 일이 있다면 한 번쯤 방문해볼 만한 재미있는 곳이다. '까사 부사노(부사노의 집)'라는 이름에 피식 웃음이 흘러나왔는데, 카페 한쪽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부산의 문화를 만들고 알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사노라고 합니다.' 이번 비엔날레 전시장으로 사용한 지하 금고미술관도 강철문과 이중 철문, 잠금장치 등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해 관람 내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이곳에는 한국인 작가 차지량, 이양희, 구현주, 최윤 작가를 비롯해 세네갈 출신 셰이크 은디아예(Cheikh Ndiaye)의 설치작업 '르 파리(2024)', 소피아 알-마리아(Sophia Al-Maria)의 '황소와 곰(2023)' 등이 전시되어 있다. 한편 초량동은 부산역 건너 북쪽 구룡산 기슭으로 가는 길에 펼쳐진 동네다. 부산항을 통해 이 땅을 밟은 외지 상인들과 난민들이 드나들던 부산의 역사를 그대로 품은 곳으로, 한때 일본인들이 정착해 살아 이런저런 양식이 혼합된 근대식 건물이 남아 있다. 초량동 주택가 안쪽 골목에 위치한, 비엔날레 마지막 장소 초량재도 1960년대에 세운 가옥으로 추측된다. 이곳을 비엔날레 장소로 선정한 것은 선박, 즉 '해적선'을 떠올리게 하는 독특한 의관 때문이라 한다.

감각의 틀을 벗어난 다채로운 라인업
공간을 발견하는 맛도 좋았지만, 몇몇 작품은 공간과 별개로 잔상이 오래 남았다. 한성1918에서 비엔날레 작품 중 가장 처음 접한 니카 두브로브스키의 영상 작업 '파이트 클럽(2022)'은 이번 비엔날레 주제에 영향을 준 데이비드 그레이버 사상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TV 토론을 패러디한 듯한 이 영상에는 작가의 남편이었던 데이비드 그레이버, 그리고 철학자 토머스 홉스와

장-자크 루소 역을 맡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철학적 거장들의 대결을 무대에 올려 현대사회를 형성하는 근본적인 사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한다. 성악설 vs 성선설, 중앙집권적 권력 vs 개인의 권리와 민주주의 등 30분 24초의 러닝타임이 전혀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흥미진진한 대결이다. 부산근현대역사관 지하 복도에 전시돼 이목을 끌었던 구현주 작가의 작품 '무궁화 해적단'(2024)은 이번 비엔날레 주제에 영향을 준 '해적'의 이미지를 전면에 적용했다. 'Kay2'라는 스트리트 아티스트로 활동하는 작가는 한국 전직 대통령령의 초상화에 그래피티로 해적 이미지를 씌우고(민주주의를 훼손했거나 간선제로 당선된 대통령령은 제외했다), '유럽 계몽주의의 토대가 된 마다가스카르 해적의 민주적 세계는 과연 유토피아였을까?'라는 질문으로 민주주의는 정지되어 있지 않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상기시킨다. 복도를 지나면 어두운 금고 안에서 안무가 이양희의 영상 작품 '해일(2020)'이 발걸음을 붙잡는다. 테크노 비트에 춤추는 영상을 어둠 속에서 한참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내 안에 내재된 춤을 향한 욕구를 자극해 영상 속 댄서들을 따라 몸을 흔들게 된다. 예년에 비해 일정을 앞당기는 바람에 무더운 여름 날씨가 우려되어서인지 야외 작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래서 을숙도에 있는 부산현대미술관의 잔디밭에 이두원 작가가 옮겨놓은 캐라벤에 더욱 눈길이 갔다. 특히 어린 관람객들의 관심을 끈 이 캐라벤은 그 안에 식물로 가득 채운 작가만의 소유주가 펼쳐져 있다. 작가의 스타일대로 알록달록한 그림으로 걸을 치장했지만, 사실상 문을 열고 들여다보기 전까지는 사람의 소유주, 즉 진짜 내밀한 세계는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걸까.

어둠 속에서 다시 희망을 찾아
이번 부산비엔날레는 개막일부터 미술관이 북적거릴 정도로 시민들에게 한 발짝 다가간 것

5 한성1918은 한국 최초의 근대 은행인 한성은행 건물로 사용된 곳이다. 6 한성1918에서 상영 중인 니카 두브로브스키의 '파이트 클럽'은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의 사상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7 금고미술관이 위치한 부산근현대역사관은 한때 한국은행 부산 본점으로 사용되었다. 8 인터넷 네트워크가 잡히지 않는 금고미술관에 전시된 최윤 작가의 '배경 음악: 비트코인과 블랙홀'은 비엔날레 기간 웹상에서 스트리밍된다. 이미지 제공, 부산비엔날레 9 해적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차용한 구현주 작가의 '무궁화 해적단'(부산근현대역사관). 10, 11 부산근현대역사관에 전시된 안무가 이양희의 '해일'은 춤을 향한 관람객의 욕구를 자극한다. 12 2024부산비엔날레 전시관 중 하나인 초량재는 초량동 주택가 안쪽 골목에 자리한다. 13 초량재 2층에 전시된 슈쉬 솔리미안과 아이 외완 다르마디의 'PETA - 한 점의 구름, 아홉 개의 빛방울(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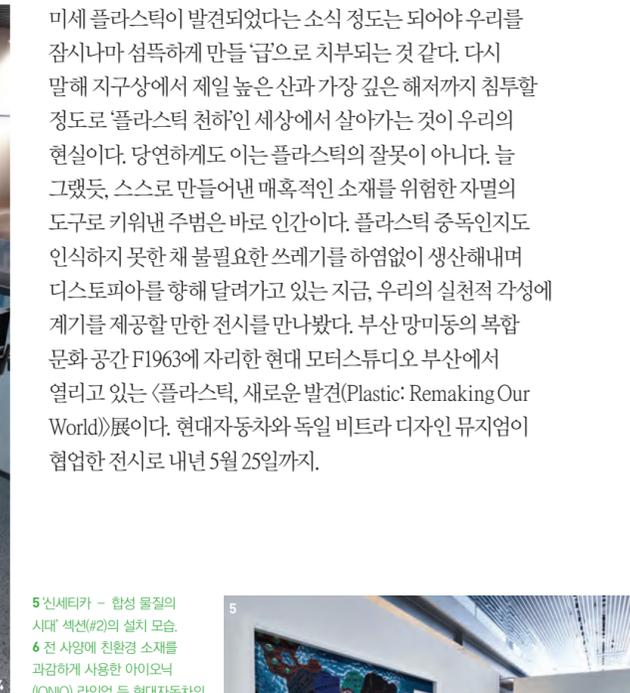
으로 보였지만, 모순되게도 관람 친화적이지 않은 환경이 여러모로 아쉬웠다. 앞서 말했듯 비엔날레 전체를 관통하는 큰 주제 의식이 미약하고, 그래서인지 각 작품과 작가 설명을 이해하기도 인지하기도 어렵다(종이에 번진 듯한 작은 QR코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다 근현대역사관 지하에서는 무선 인터넷 신호가 잘 잡히지 않았다). 먼저 주제를 정하고 난 다음에 참여 작가 라인업을 세운 것이 아니라, 두 작업(주제 선정과 라인업 구성)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상호작용시키면서 비엔날레를 준비했다는 공동 전시 감독 필립 피로트(Philippe Pirotte)의 대답에서 아쉬움의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또 부산 원도심의 새로운 공간을 발굴해 소개한다는 목적이 무색하게, 전시 장소에 관한 설명과 선정 이유, 배치한 작품들과의 관계성을 전시장이나 웹사이트 어디에서도 파악할 수 없었다. 단순히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서가 아니라 어쩌서 '부산 비엔날레'인지 정체성을 더 드러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9월 7일에 시작한 광주비엔날레와 협업해 전시 관람권을 판매하기로 한 결정은, 지역 갈등을 넘어서는 고무적인 행보라 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기성을 파괴하고 새로움을 개척하는 해적 정신이 아닌가. 몇몇 아쉬움에도 여전히 이 매력적인 항구도시 방문을 추천하게 하는 2024부산비엔날레는 오는 10월 20일까지 계속된다. 클립민서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Plastic: Remaking Our World〉展

‘호모 플라스티쿠스’의

각성을 기다리는 지구



해마다 9월을 앞둔 여름 한복관에 ‘행사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하는 광경이 문화 예술계의 다플 트값처럼 된 지 벌써 수년이 흘렀다. 프리즈 서울과 카야프 서울이 함께 열리는 아트 페어 주간을 둘러싸고 각종 전시와 행사가 쏟아지는 축제의 무대는 화끈한 우리 민족의 성향 덕분인지, 이미 분주하기 짝이 없는 서울도 모자라 전국으로 확대된 모양새다. 이 시기에 맞춰 여러 도시의 갤러리나 미술관에서는 한 해 가장 공들인 기획전을 꾸리고, 브랜드들은 파티나 토크 프로그램을 앞다퉀 선보인다. 올해는 광주와 부산에서 비엔날레를 개최하고, 대구에서는 간송미술관이 문을 열어 ‘판이 더 커진 느낌이다. 스펙트럼의 다채로움, 문화 허브로서의 경쟁력 같은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면면이 보인다. 내로라하는 문화 예술계 거장들, 그리고 반짝이기 시작한 재능을 갖춘 하늘 아래 마주하는 일도 즐겁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느껴진다. 다수의 손님을 맞아들이는 전치에는 플라스틱 컵과 접시 같은 일회용품용 산더미처럼 동반하고 ‘친환경(eco-friendly)’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된 홍보용 ‘에코 백이 범람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작품 설치에 위한 온갖 자재와 도구는 다 어찌 처리될지도 걱정된다. 물론 환경을 의식하는 많은 예술가들은 폐소재를 사용하고 자원 낭비를 줄이려 애쓴다. 그렇더라도 ‘콘텐츠가 너무나 많은 나머지 단기간에는 제대로 소화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말로 이렇게까지 필요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너무도 익숙해 간과하기 쉬운 전 지구적 과제

아마도 이 같은 배경에서 늦여름 아트 주간에 빼곡한 스케줄 틈을 비집고 부산행 기차에 몸을 실었는지도 모르겠다. 독일 바일암라인에 위치한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과 부산 망미동의 공간을 넓은 범주의 다양한 ‘디자인’ 콘텐츠에 진지하게 활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협업으로 꾸민 전시 (플라스틱, 새로운 발견(Plastic: Remaking Our World)) 사실 필자가 이 전시를 시작한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이 2년 전 여름 세계적인 아트 페어 관람차 방문했던 스위스 바젤에서 가까운 터라 기회를 살짝 엿보기만 했던 기억이 있다. 당시 뻘뻘한 일직 탓에 놓쳤는데, 싱가포르 등을 거쳐 2년여 만에 이렇게 부산에서 그곳까지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스타그램을 수놓을 만한 화려한 전시는 넘쳐흐를 정도로 쏟아지지만 우리가 인류의 근본적인 생존 여부와 삶의 질을 놓고 볼 때 실질적으로 각성해야 하는 주제를 진지하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다루는 규모 있는 디자인 기획전은 그리 흔하지 않기에 반갑지 않을 수 없다. 에코 백이라는 물건을 아주 오래전부터(에코라는 의미가 무색해지기 전) 선호했고, 되도록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며, 언젠가부터는 웬만하면 카페나 영화관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려고 노력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더라도 ‘플라스틱 문화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는 한 시민으로서, 그리고 여러 방면의 디자인 콘텐츠를 오랫동안 다뤄온 1인으로서도 말이다. 전시 개막 때 부산을 찾은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의 미야 호프먼(Mea Hoffmann) 큐레이터가 말했듯, 플라스틱 문제는 ‘산업계, 입법, 디자인, 그리고 소비자 개개인이 협력해야 하는’, 모든 이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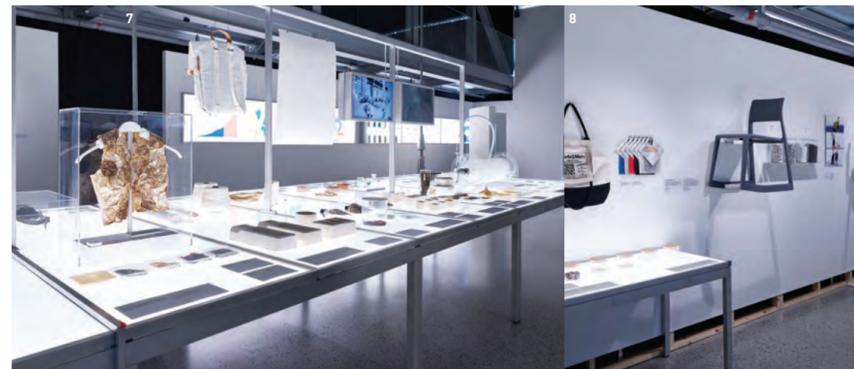
1 부산 망미동의 복합 문화 공간 F1963에 자리한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입구에 설치된 크리에이티브 월. 영국 디지털 아트 그룹 유니버설 에브리싱(Universal Everything)이 현대자동차의 미래 비전과 철학에 바탕을 두고 제작한 여러 작품을 상영한다. Photo by 고성연 2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에서 진행 중인 〈플라스틱, 새로운 발견(Plastic: Remaking Our World)〉展은 독일에 있는 비트라 디자인 뮤지엄과 함께 하는 네 번째 전시다. 3 2층에서 시작되는 전시 첫 섹션에서 만나볼 수 있는 첫 작품인 ‘칼파(Kalpa)’. 실험적 건축가로 알려진 아시프 칸의 물입형 영상 작품으로 지구 해양 미생물이 태초부터 해저에서 축적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거쳐, 20억 년 뒤에 석유의 형태로 발견되기까지의 여정을 담아 생태계가 오염되어버린 지구의 현실을 보여준다. 4 〈플라스틱, 새로운 발견〉 전시 세 번째 섹션인 ‘페트로모더니티 - 석유화학의 시대’(#3-1)와 ‘플라스티신 - 플라스틱의 시대’(#3-2).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상 과제 아니던가. 물론 하나의 전시가 인류를 행동가로 만들지는 않겠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지식이나 통찰을 얻을 수는 있다(그리고 사회적 담론을 조성하는 계기까지). 미야 호프먼도 전시를 기획하면서 많은 걸 배우게 됐으면서 “3개 기관이 협력하고 큐레이터도 7명이나 참여한 걸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다루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어디에나 존재하는 플라스틱의 양면성과 우리의 선택

우리는 일반적인 플라스틱이 자연적으로 썩는 데 1백 년 걸린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지만, 막상 그 걸진 생명력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다. 갖가지 형태와 색상을 입은 채 어디에나 있는 존재여서일까? 수년 전 마리아나 해구에서 발견된, 수심 6,500m 심해에만 서식한다는 벼룩새우가 배 속에 PET 섬유를 품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을 때 학자들은 이 새우에게 ‘에우리테네스 플라스티쿠스(Eurythenes Plasticus)’라는 학명을 선사했다. 지구상에 플라스틱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다는 현실을 알리는 명명이다. 〈플라스틱, 새로운 발견〉 전시의 포문을 여는 아시프 칸의 9분짜리 물입형 영상 작품은 벼룩 새우의 슬픈 춤을 연상시키는데, 전체를 아우르는 메시지를 응축하고 있다. 산스크리트어로 흰두교와 불교 우주론에서 세계가 성립되어 존속하고 파괴되어 사라지는 하나하나의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 ‘칼파(Kalpa)(2022)’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지구 해

양 미생물이 태초부터 해저에서 축적되고 변형되는 과정을 거쳐, 20억 년 뒤에 석유의 형태로 발견되기까지의 여정을 담아냈다. 결국은 플라스틱 제품과 폐기물로 오염된 지구를 그린 비극적인 내용의 본질과는 사뭇 다르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화면으로 풀어냈는데, 배경에 깔린 음악은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유명한 왈츠곡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강’이다. 역설적으로 이 왈츠곡이 연주되었던 1867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변형성 플라스틱인 ‘파크신(Parkesine)’이 은메달을 수상했는데, 이것이 바로 플라스틱 산업의 탄생을 부르는 계기가 됐다고. 이 은근히 강렬한 영상 작품을 필두로 여러 섹션으로 펼쳐지는 전시는 인간의 생활에 커다란 변화를 몰고 온 혁신적 발명이었고, 심지어 한 때는 일종의 ‘럭셔리로’ 선풍되기도 했지만, 지구를 병들게 하는 위험 요소이기도 한 1백50년에 걸친 플라스틱의 다면적 역사를 여러 시기와 측면에서 다룬다. 무분별한 인간의 행태가 플라스틱에 나쁜 이미지를 덧씌웠지만 사실 우리네 일상에서 플라스틱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게, 그리고 요긴하게 쓰이고 있는, 도저히 분리할 수 없는 자원이다. 플라스틱 시대를 예견한 화학자들이 장밋빛 전망으로 ‘유토피아’라는 단어를 쓴 흔적이나,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다는 데 영광하던 시절의 전시장 포스터를 보면 씁쓸하기도 하지만 플라스틱의 혁신적인 물성을 둘러싸고 전개됐던 20세기의 신선하고 창조적인 실험 정신이 다시금 빛을 발해 친환경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새 문화를 빚어내기를 바라게 된다. 이미 많은 기업과 연구자가 미래형 플라스틱 개발이나 재활용 기술에 골몰하고 있지만, 폭넓은 범용화 단계에 이르기 전에 지구가 병사할 수도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매 순간 엄청난 양이 늘어나는 데 반해 20세기 이후 전 세계에서 생산된 83억 톤의 플라스틱 중 고작 9% 정도만이 재활용되었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리고 덜 사고, 덜 만들고, 제대로 재활용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우리가 지금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각종 어린 행보가 절실하다. 글 고성연



5 신세티카 - 합성 물질의 시대 섹션(#2)의 설치 모습.
6 전 시상에 친환경 소재를 과감하게 사용한 이이오너 (IIONO) 라인업 등 현대자동차의 다양한 친환경 신소재를 소개하는 섹션(#5)의 모습.
7, 8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재사용과 재활용을 실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사례를 소개하는 섹션 ‘다시 만들다(Re-)’ 설치 모습(#4).
9 ‘프레스스 플라스틱과 P2H 워크숍’ 섹션. 재활용이 불가능해 땅에 매립되거나 태워서 처리해야 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소로 변환하는 기술인 ‘P2H(Plastic-to-Hydrogen)’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섹션이 3층 전시장 마지막 동선에 위치한다. 페트병의 병뚜껑을 녹인 뒤 몰드로 새로운 모양을 제작하는 디자이너 데이나 하켄스의 ‘프레스스 플라스틱’ 프로젝트 시연도 관람 가능하다.
※ 2-9 이미지 제공: 현대 모터스튜디오 부산 © Hyundai Motor Company



Get

The

List

지금 바로 함께해야 할 핫 아이템. PHOTOGRAPHED BY IJUHYUK



BVLGARI
1940년대부터 불가리가
계승해온 주얼리 기법을
아이코닉한 컬렉션으로
승화시킨 불가리 투보가스
컬렉션의 브레이슬릿으로,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완성했다. 1천9백
30만원.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간헐적으로
파베 세팅한 불가리 투보가스
네크리스 3천90만원. 모두
불가리. 문의 02-6105-2120



RALPH LAUREN
풀 그레인 카프 스킨 보디와
트림 디테일의 스몰릿 카프
스웨이드 안감 등 최고급
소재를 사용해 이탈리아에서
수작업으로 정교하게
완성한 백. 넉넉한 내부
공간과 고급스럽게 흐르는
듯한 실루엣이 매력적인
RL 888 토트백 4백30
만원대 **랄프 로렌 컬렉션**
문의 02-3467-6560



TOD'S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가죽으로 편안함과
우아함을 모두 충족시킬
바레타 디테일의 물
1백30만원대 **토즈**
문의 02-3438-6008



HERMÈS
에르메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담은 독특한
커빙 형태의 라운드 케이스가
인상적인 워치. 서플러 새틴
브러싱 마감한 지름 38mm
의 스틸 케이스에 총 0.834
캐럿의 다이아몬드 56개를
세팅한 750 5N 로즈 골드
베젤을 매치했다. 에르메스
매뉴팩처 루브르르 H1912로
구동한다.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워치. 문의 02-542-6622



GRAFF
우아하고 아름다운 비행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버터플라이에서
영감받아 탄생한 버터플라이
컬렉션의 멀티 세이프
다이아몬드 네크리스. 총 5.91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8천8백5만원. 총 5.14캐럿의
페어 세이프와 마키즈 컷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그라프
클래식 버터플라이 컬렉션 페어
세이프와 마키즈 다이아몬드
이어링 1천3백82만원. 모두
그라프. 문의 02-2150-2320

BREGUET
지름 33.8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에 선버스트 블루
다이얼을 매치하고 베젤에
다이아몬드 50개를 세팅했다.
8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아워 마커로 화려한 느낌을
더했으며, 591A 셀프 와인딩
무브먼트로 구동하는 마린
9518 3천8백70만원 **브레게**
문의 02-6905-3571



OMEGA
달에서 착륙했던 4세대
스피드마스터에서 영감을 받은
워치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지름 42mm 비대칭
케이스에 화이트 래커 스텝
다이얼과 아틀리케 오메가
로고 및 인덱스. 문워치
스타일 핸즈, 아이코닉한
DON(도트), 양극산화
처리한 블랙 알루미늄 베젤
링 등 디테일이 돋보이는
스피드마스터 문워치
프로페셔널 1천1백만원대
오메가. 문의 02-6905-3301



SHISEIDO
(왼쪽부터) 1백50년간 쌓아온
피부 과학 솔루션이 담긴,
연명초라 불리는 엔메이
허브와 롱 제너티 콤플렉스
™가 피부에 영양을 부여해
탄력을 강화하는 고농축
액서리 세럼, 퓨처 솔루션 LX
인텐시브 피밍 브릴리언스
세럼 50ml 43만원대, 세럼과
같은 효능과 효과를 지녔으며
혁신적인 사용감과 피부에 깊이
흡수되는 부드러운 포플러가
특징인 퓨처 솔루션 LX 토탈
리제네레이팅 크림 50ml 42
만원대 모두 **시세이도**.
문의 080-564-7700
에디터 성장민



BAG UP!

2024 가을 스타일, 잇백(it bag)으로 완성하다.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베이지 컬러 테일러드 재킷, 카키 컬러
니트 크롭트 카디건, 레더 쇼츠, 다크
카키 컬러 플라멩고 펠스 백 모두 가격
미정 **로아에** 블루 컬러 피카부 | SEE
U 소프트 라지 백 가격 미정 **렌디**



엠보스 디테일의 옐로 오버사이즈드
레더 코트, 인레이 및 랩 디테일의
라이트 머스타드 울 롱슬리브 니트 톱,
엠보스 디테일의 옐로 레더 쇼츠, 슬림
라이트 골드 홀스벳 디테일의 다크 블랙
사이니 레더 부츠, 플랫폼 더블 G 클로저
디테일의 로소 양코라 폴리리드 레더
미디움 톱 핸들 백 모두 가격 미정 **구찌**.

노트북 워밍 기법의 스트레치 비스코스
셔츠, 플레어 팬츠, 스트레치 시어
쿠프로 저지 롬, 스텔링 실버 이어링,
인트레이치오 워밍 기법의 칼라메로 씨타
백 모두 가격 미정 **보태가 배너**



램 스킨 소재의 코트 2천72만원,
울 소재의 니트 1백82만원, 램 스킨
소재의 팬츠 1천1백60만원, 카프
스킨 소재의 풀리에 다들라주 백
1천5백60만원 모두 **에르메스**

포스터 더블브레스트 코트, 실크 소재의 마리아 재킷, 롬 베스트, 에드워드 팬츠, 콜로니얼 햇, 핑크 컬러의 기에라 스몰 백, 레드 컬러의 롬 백 L32 모두 가격 미정 로로피아나



바이올렛 컬러의 오프숄더 드레스
가격 미정, 에메 라지 가죽 숄더백
4백30만원 모두 프라다



이리데스트 캐시미어 트워드 소재 재킷과
팬츠, 메탈 & 레진 소재의 체인 벨트,
메탈 소재의 이어링, 초커, 네크리스,
핑크 컬러 램 스킨 & 골드 톤 메탈 플랩
백, 베이지 컬러 램 스킨 & 골드 톤
메탈 플랩 백 모두 가격 미정 샤넬

그레이 컬러 니트 베스트·아이보리
컬러 코튼 셔츠·브라운 컬러 팬츠
가격 미정, 레드 컬러 다르세나 파우치
백 3백41만원, 브라운 컬러 다이아 백
플리오 미디엄 2백60만원 모두 토즈

헤어 오지혜
메이크업 조혜민
모델 Mia(EXCLUSIVE MANAGEMENT)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샤넬 080-805-9628
에르메스 02-542-6622
로로피아나 02-546-0615
토즈 02-3438-6008
로에베 02-6905-3470
프라다 02-3218-5320
보테가 베네타 02-3438-7682
펜디 02-544-1925
구찌 02-3452-1921



Time in Art

프리즈(Frieze)와의 예술적 만남을 이어가는 브레게가 9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프리즈 서울에 참여한다. 큐레이터 젠 엘리스(Jenn Ellis)와의 협업을 통해 '포스트 아틀란티카(Post Atlantica)'를 선보이는데, 이 작품은 기후와 지질학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딥 타임(deep time)'이라는 관점에서 지구의 궤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고기후학과의 예술적 대화를 담아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하다.

시간이 지닌 새로운 면

브레게는 프리즈 아트 페어와 함께한 지 세 번째 해를 맞이해 스위스와 콜롬비아에 뿌리를 둔 큐레이터, 젠 엘리스와 새로운 협업을 시작했다. 그녀는 예술과 공간, 그리고 환경의 조화에 열정을 품으며 지난 10년 동안 전 세계의 예술가, 갤러리, 그리고 협회를 이어주며 이들과 함께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시도했다. 큐레이터 스튜디오 압사라(APSARA) 창립자이기도 한 젠 엘리스는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된 프랑스



1 프리즈 서울 브레게 라운지. 2 아티스트 노에미 구달. 3 브레게 라운지에서의 큐레이터 젠 엘리스. 4, 5 브레게 라운지 큐레이팅을 담당한 젠 엘리스. 6 브레게 라운지에서 워치 무브먼트 뒷면에 인그레이빙을 시연하는 모습.

부르고뉴의 포도밭부터 영국 메릴본의 2등급(grade II) 교회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이번 프리즈 페어에서 선보이는 시리즈는 4개 챗터로 이루어져 있으며, '진화적 변화'라는 중요한 주제로 기획되었다. 예술, 과학, 문학, 기계학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이 시리즈는 브레게의 역사와 전통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와 세계성을 강조하며 한 해를 통틀어 마음을 울리는 순간을 되짚어볼 수 있다. 서울 소재의 성곡미술관에서 개최한 그룹 전시회에 이어 파리 퐁피두에서 개최할 단독 전시회를 앞두고 프리즈 서울에서 먼저 선보이게 된 노에미 구달(Noémie Goudal)의 작품에는 3점의 사진과 더불어 새롭게 제작한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녀가 기록한 영상과 사진에는 자연스러운 배경에서 계획적으로 연출된 환상적인 분위기의 설치미술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혁신과 정교한 장인 기술을 강조해온 브레게의 역사와도 궤를 같이하는 구달의 작품은 생태학과 인류학이 교차하는 연구를 바탕으로 자연 세계에 대한 기존 이론들을 재해석하며, 기술력과 혁신을 아우른다. 작가를 선정한 큐레이터 젠 엘리스는 이렇게 전했다. "서울이 지닌 특유의 에너지에 화답하는 의미로 고기후학에 지대한 관심을 지닌 뛰어난 아티스트 노에미 구달을 꼭 소개하고 싶었다. 서울이 지니고 있는 에너지는 놀라우며, 전 세계가 나아가는 방향에 맞추어 앞으로 계속 빛을 발할 것이라 생각한다. 나에게도 지구의 다양한 지역 간 연결성을 발견하는 것도, 시간 및 혁신과 맺고 있는 브레게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자연, 생태학, 기술과 인간과의 교류, 즉 인류의 발전에 대해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다." 미학을 추구하는 브레게와 젠 엘리스의 아트 큐레이팅의 의미 있는 만남은 하이엔드 워치메이킹 하우스의 헤리티지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Interview with_ Jenn Ellis

Q1. 브레게와 함께 2024 프리즈 아트 페어에 참여하게 된 과정과 소감은?

각 프리즈 페어의 네 챗터에 걸쳐 '시간'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 변화가 일어나면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생각에 따라 '진화적 변화'를 탐구하고자 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 변화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도 함께 던졌다. 진화라는 용어는 자연, 혁신, 정체성뿐 아니라 감성적, 과학적 렌즈를 통해 시간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준다고 믿는다. 과학자 집안에서 태어난 스위스-콜롬비아 출신의 큐레이터로서 이번 협업은 예술, 과학, 혁신, 생태학 등 내가 가장 관심을 갖는 여러 분야를 결합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또 예술가들에게도 전시 기회가 주어진다 점에서 매우 기대가 된다.

Q2. 브레게와 함께하는 프로젝트인 만큼, 이번 큐레이팅에 브레게의 배경이 많이 관여되었을 것 같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랐기에 브레게를 알고 있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미묘하게 기술어린 디자인이었다. 우아함, 정밀함, 디테일 지향성은 처음에 가장 높이 평가했던 부분이며, 아티스트의 작품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후 2024년 2월 프랑스 파리 방돔 뮤지엄과 스위스 발레 드 주에서 시계 제작 공방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과학과 혁신에 대한 투자와 장인의 손길을 강조하는 균형 잡힌 모습에 감탄했다.

Q3. 그동안 브레게가 프리즈 서울에 참여했다. 작년과 올해 다른 스토리텔링이 있다면?

예술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가장 공감적이면서도 비판적인 매체 중 하나다. 이번 프리즈 서울에서 나는 기술, 미래, 지리적 변화, 그리고 그것이 지구와 인류에 미치는 영향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 지구의 궤적을 이해하기 위해 '딥 타임'이라는 관점에서 기후와 지질을 분석하는 노에미 구달의 작품 시리즈와 새로운 영상을 전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특히 올해는 큐레이터 프로그램의 일부인 챗터마다 1명의 아티스트를 초대한다는 점이 특징이며, 각 작가의 작업 세계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기회라고 생각한다. 노에미 구달의 경우, 최근 한국 성곡미술관에서 그룹전의 일환으로 전시했던 세 작품을 선보이고, 그녀의 새로운 커미션 작품인 '포스트 아틀란티카(Post Atlantica)'를 최초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작품은 2024년 10월 프랑스 퐁피두 센터의 국립현대미술관(Musée National d'Art Moderne - Centre Pompidou)에서 열리는 그녀의 주요 개인전 일부가 될 예정이기도 하다.

Q4. 이번 전시를 이끌 작가로 노에미 구달을 발탁하게 된 배경은?

전부러 노에미 구달의 개념적 탐구에 매료되었지만, 그녀의 작품에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그 중요한 탐구를 미적 매력과 결합하는 방식이다. 작품에 빠져들어 자세히 들여다보아야만 작품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바로 그러한 작품의 복잡한 연극성과 구조가 핵심이다. 나는 그녀가 고기후학의 맥락에서 깊은 시간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보다 과학적인 렌즈로 진화를 탐구하는 데 완벽한 작가라고 생각했다. 또 그녀의 작품, 특히 새로운 영상 작품인 '포스트 아틀란티카'는 거대한 LED 디스플레이로 자연 세계와 현대 기술을 조화시키는 흥미로운 방식이라 생각한다.

Q5. 2024 프리즈에서 소개할 노에미 구달의 대표 작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고생물학 분야와의 예술적 대화를 풀어내는 노에미 구달의 작품은 사진 프린트와 영상으로 구성된다. '샷' 시리즈부터 영상 '포스트 아틀란티카'까지, 이 작품들은 구달이 지구의 궤적을 이해하기 위해 '딥 타임'의 관점에서 기후와 지질을 분석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수백만 년 단위로 측정된 이 시간 척도는 지형이 지속적 흐름 속에서 순간적인 상태일 뿐임을 드러내고, '아틀란티카(Atlantica)'



“브레게의 타임피스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장인의 감성과 섬세한 손길, 그리고 뛰어난 기술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오랜 시간 이어온 유산에 대한 존중, 그리고 역사적 표현과 혁신 사이의 균형이 인상적이었다”

는 약 20억 년 전인 고생대에 형성된 고대 대륙으로, 이후 서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동부를 형성하면서 분리되었다. 궁극적으로 구달의 영상, 사진, 몰입형 설치 작품은 무성한 초목, 바위 해안, 눈 덮인 산, 늪지대 등 다양한 풍경을 묘사함으로써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의 상호 연결성을 반영한다. 이 작품들을 통해 광활한 공간과 시간을 강조하고 인간 중심적이지 않은 존재 방식을 탐구할 수 있다.

Q6. 작가 노에미 구달 작품과 브레게 위치에 공통점이 있다면?

노에미 구달과 브레게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탐험하는 시간'과 '이해하는 시간'에 중심을 두고 있다. 구달은 풍경 속에 야심 차고 환상적인 설치물을 제작하고, 영화와 사진으로 기록한다. 한편 브레게는 역사적으로 강조해온 연구, 글로벌리터, 세심한 장인 정신에서 유사점을 지닌다. 또 구달은 생태학과 인류학의 교차점을 조사하고, 자연 세계에 대한 이론적 개념의 한계를 탐구하는 엄격한 자세가 브레게와 많이 닮았다고 본다. 문의 02-3479-1008
에디터 윤자경





Honor of Craftsmanship

올해도 한국 공예 후원 사업에 헌신하는 재단법인 예율이 샤넬과 '예율×샤넬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남다른 기술력을 기반으로 하는 샤넬의 철학과 유사 깊은 장인 정신을 기리고 기술을 계승 및 발전시키고자 하는 재단법인 예율의 만남은 기대감과 함께 늘 따뜻한 진심이 느껴진다. 이번에도 역시 내공 깊은 장인과 젊은 공예인을 선정하고 그들의 작품을 전시하며 장인 정신과 예술의 가치를 드높인다.



재단법인 예율은 우리 문화유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전통 공예의 가치를 돌아보고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비영리재단이다. '예율×샤넬 프로젝트'는 '예-과거와 현재를 잇고, 율-현재와 미래를 잇는 재단법인 예율의 전통 공예 후원 사업이다. 3년째가 되는 올해, 또 한번 장인과 젊은 공예인을 선정하며 명맥을 이

어간다. 2024년 올해의 장인에 대장장 정형구를, 올해의 젊은 공예인에 유리공예가 박지민을 최종 선정했다. 장인들의 프로젝트 결과물은 8월 22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되는 예율×샤넬 프로젝트 전시 <운도와 소리가 깃든 손 : 사계절(四季節)로의 인도>를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아키텍처컬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잊혀가는 전통 공예가 현대와 잘 어울려 미래의 새로운 전통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공예를 가꾸고 지켜나가겠다**”
by 재단법인 예율 김영명 이사장

다이제스트(AD)에서 한국인 최초로 세계 100대 디자이너에 선정된 양태오 디자이너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시 총괄 디렉팅 및 작품 협업에 참여한다. 양태오 디자이너는 이번 프로젝트 중 '올해의 장인'으로 선정된 대장장 정형구의 손에 주목한다. 철이라는 거친 속성의 재료마저 일상적인 공예로 재탄생시키는 과정의 아름다움을 디스플레이로 담기 위해 노력했고, 이번 전시에서 재료의 물성에 대한 관념과 편견을 재구성한 현대적인 일상 도구를 선보인다. 또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대장장이의 작업과 인고에서 밤과 낮, 계절과 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을 반추하고, 사계절의 순환 속에서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도구를 제안한다.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예율의 김영명 이사장은 "샤넬과 함께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사라져가는 우리의 대장간 문화를 새롭게 탄생시킬 수 있어 뿌듯하다"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잊혀가는 전통 공예가 현대와 잘 어울려 미래의 새로운 전통이 될 수 있도록 한국 공예를 가꾸고 지켜나가겠다"고 전했다.



철의 장인, 대장장 정형구

올해의 장인으로 선정된 대장장 정형구는 대장간이 사라져가는 현대에도 묵묵히 철을 두드리며 대장간의 명맥을 잇고 있다. 2015년 문화재청 창덕궁 직영사업단 전통 건축 철물 제작으로 시작해 현재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 철물 객원교수와 충북대장간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다. 결혼 후 대장간을 운영하는 장인의 뒤를 이어 대장장이의 길로 들어선 그는 끊임없이 수련해 실력을 쌓았으며, 승래문 화재를 계기로 전통 철물에도 도전해 철물 분야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되었다. 오늘날에는 다소 생소한 대장장이 공예는 인류의 문명사에서 빼놓을 수 없

는 소재인 철을 가공해 일용품을 만드는 것으로, 농기구부터 문고리까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도구를 제작하는 공예다. 따라서 철이라는 재료는 여전히 우리 삶과 아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지만 직접적으로 실감하지 못할 뿐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장인은 전통 소재를 현대적 감각으로 풀어내는 디자이너 양태오와 협업하면서 대중에게 한발 더 다가선다. 대장장이 공예를 현대의 사계절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새롭게 제작한 일용품을 선보이는 것. 대장장이의 대표적인 작업으로 유명한 원예 도구 외에도 화로, 책받침, 집시 등 철 소재를 다양하게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유리의 재탄생, 공예가 박지민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작가 박지민은 미국 로드 아일랜드 디자인 스쿨(Rhode Island School of Design)에서 금속공예와 디자인을 전공했다. 2024년 뉴욕 어번 글라스(Urban Glass) 개인전에 이어 이탈리아 베네치아, 상하이, 워싱턴, 프라하 등 전 세계 박물관과 전시회에서 작품을 선보였다. 올해 예율×샤넬 프로젝트에서는 젊은 공예인으로 선정되며 유리공예가로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또 한번 펼쳐낸다. 박지민 작가의 작품은 기존의 투명하고 깨끗한 유리의 물성에서 탈피한 듯한 모습으로 새로운 유리판을 조성한다. 일상 속 작은 나

뫓잎 혹은 종이 조각 등을 유리 안에서 태우고 그윽려 인공적인 색 없이 재와 그을음을 통해 유리를 새로운 물성으로 다시 탄생시킨 듯하다. 이는 앞서 소개한 대장장 정형구의 작품과 이질적인 느낌 없이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그녀가 만든 재와 그을음이 정형구 작가의 작품과 연결 짓는 통로가 되어주는 듯하다. 그녀가 만든 유리 화병은 추상적인 오브제가 될 뿐 아니라 생활 속 공예품으로 사용하기에도 손색없다. 이처럼 그녀의 작품은 추상과 현실을 오가는 다양한 작품의 세계로 무한히 확장하며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듯하다. 문의 02-735-5878, yeol.org

1, 2, 3 전시 총괄 디렉터 양태오 디자이너에 의해 아름답게 재탄생한 올해의 장인, 대장장 정형구와 올해의 젊은 공예인, 유리공예가 박지민의 합작품. 4 대장장 정형구의 작품이 전시된 모습. 5 올해의 장인, 대장장 정형구. 6 대장장 정형구의 작품. 7 올해의 젊은 공예인으로 선정된 유리공예가 박지민. 8, 9 유리공예가 박지민의 작품.





Taste of Europe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진짜 유럽의 컬러를 맛보다!(Colours by Europe. Tastes of Excellence!)' 캠페인을 전개한다. 다양한 토양과 원료, 생산 방식, 문화에 기반한 오랜 역사를 지닌 유럽연합 식음료의 진미를 발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으로,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안쿠브레 동교점을 방문하면 유럽연합에서 생산한 농식품의 특성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다.

어떤 나라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싶다면, 그 나라의 식문화를 경험해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유럽연합 생산자는 식품 안전은 물론, 품질까지 뛰어난 면에서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한 식음료를 제공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엄격한 생산, 가공, 포장 기준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 식음료는 전통에 기반한 고유한 맛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토록 특별한 유럽연합의 고유한 맛을 즐길 수 있도록 한국에서 '진짜 유럽의 컬러를 맛보다!(Colours by Europe. Tastes of Excellence!)' 캠페인을 전개한다.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안쿠브레 동교점을 방문하면 유로피언 푸드 익스프레스(European Food Express)에 답송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 유로피언 푸드 익스프레스 이벤트에서는 유럽연합에서 생산한 농식품의 특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쿡킹 클래스와 토코 세션을 마련한다. 다채로운 지형과 문화, 역사 덕분에 유럽에서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통적인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안쿠브레 동교점을 방문해 유로피언 푸드 익스프레스(European Food Express)로 저마다 독특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유럽연합 미식을 경험해보자!

방식으로 독특한 식음료를 생산해왔다. 가공육과 치즈, 채소, 올리브 오일, 와인에 부여되는 원산지 명칭 보호(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 PDO) 또는 지리적 표시 보호(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PGI) 인증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특정한 재료를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 생산한 농식품이라는 사실을 보증한다. 또 다수 제품은 유기농 생산 인증을 받기도 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유럽의 식문화를 심도 있게 이해하고, 그 진미를 즐기고 싶다면 '유로피언 푸드 익스프레스'에 답송해볼 수 있다.

남부 유럽

남부 유럽에서는 건조하고 뜨거운 여름 날씨와 쌀쌀하고 습한 겨울 날씨 덕분에 삼림과 초원, 그리고 지중해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풍경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덕분에 치즈, 가공육, 과일과 채소, 올리브 오일, 와인, 페이스트리까지, 다양한 식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의 상징적인 치즈인 파르미자노 레자노(Parmigiano Reggiano) PDO, 그라나 파다노(Grana Padano) PDO는 세계적인 명성을 누린다. 키프로스산 할루미(Halloumi) PDO 치즈는 염소젖 또는 양젖에 민트를 첨가해 독특한 맛을 자랑한다. 그리스에서 만드는 짭짤한 페타(Feta) PDO 치즈는 식욕을 돋우는 크레타산 플리토(Platy) 화이트 와인과 만나 절묘한 조합을 선사한다. 또 발렌시아(Valencia) 지역에서 재배한 쌀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파에야(Paella)의 기본 재료이며, 풍부한 풍미를 자랑하는 가공육인 초리소 리오하노(Chorizo Riojano) PGI의 원료이기도 하다. 몰타에서는 아몬드, 피스타치오, 대추가 잘 자라며, 포르투갈의 전설적인 디저트인 파스테이스 드 벨렘(Pastéis de Belém)은 전통적으로 가톨릭 수도승이 만들어왔는데, 그 기원이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스칸디나비아

그 어느 지역보다 변화무쌍한 스칸디나비아반도의 기후는 식품 제조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깊이 있는 풍미를 자랑하는 식재료가 탄생할 수 있었다. 덴마크의 온화한 겨울과 서늘한 여름은 식용 뿌리와 호밀로 만든 빵, 돼지고기, 유제품 산업이 발달하는 데 일조했고, 크리미하고 적당히 부드러운 다나블루(Danablu) PGI 소젖 블루 치즈가 생산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그리고 핀란드의 토양과 강우 조건에서는 곡물이 잘 자라는데, 이를 재료로 완성한 빵과 페이스트리는 단연코 훌륭한 맛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 숲에서 식생하는 달콤한 베리류는 널리 사랑받는 블루베리 파이인 무스티카피라카(Mustikkapiirakka)를 포함한 많은 디저트 재료로 사용한다. 스웨덴에서는 겨울 추위 때문에 링곤베리를 곁들인 지역산 고기 요리가 발달했고, 오랜 베이킹 전통으로 호밀, 귀리, 밀로 만든 빵과 얇은 비스킷류도 발달했다. 널리 잘 알려진 카넬볼라르(Kanelbullar) 시나몬 롤도 물론 빼놓을 수 없다.

발트해 연안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온난하지만 습한 발트해 연안 기후는 농업과 축산에 매우 적합하다. 라트비아에서는 수제 치즈 제조 전통을 바탕으로, 다른 곳에서는 맛보기 힘든 강렬한 풍미를 자랑하는 아니 치즈(Jānu Siers)를 탄생시켰다. 우유와 커드, 크림, 달걀, 캐러웨이 씨를 섞어 만드는 이 치즈는 오래전부터 하지에 챙겨 먹곤 했던 음식이다. 카르보나데(Karbonāde, 빵가루를 입힌 포크 커틀릿) 같은 육류 요리도 즐겨 먹는다. 리투아니아 호밀과 보리로 만든 흑빵과 꿀을 넣어 양조한 일종의 와인, 미드(Mead)는 1천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음식으로, 고대 문화가 반영된 이 음식을 리투아니아에서는 지금도 많은 이들이 찾는다. 또 에스토니아에서는 토종 돼지, 야생 돼지나 사슴 같은 수렵육과 함께 선명한 분홍빛 비트루트, 감자 셀러드인 로솔레(Rosolje)를 곁들여 먹는다.

중앙 유럽

품질이 뛰어난 곡물, 채소, 과일이 잘 자라는 중앙 유럽에서는 훈제 햄, 절인 소시지, 바삭한 슈니첼, 부드러운 살코기를 아우르는 특별한 육류 제품 또한 발달했다. 여러 중앙 유럽 국가 음식의 전통은 수 세기에 걸친 역사를 자랑하는데, 특히 독일 뉘른베르크 브라트부어스트(Nürnberger Bratwürste) PGI 돼지고기 소시지와 유명한 수제 맥주가 대표적이다. 오스트리아 알프스 지역에서 만드는, 약하게 간을 하고 살짝 훈제한 티롤러 슈페크(Tiroler Speck) PGI 햄도 잘 알려져 있으

1 신선한 풍미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움브리아 올리브 오일, 2 달콤하고 신맛이 나는 맛과 풍부한 향을 자랑하는 리투아니아의 수제 호밀빵, 3 풍부한 육즙을 함유한 독일 뉘른베르크 브라트부어스트(Nürnberger Bratwürste) PGI 돼지고기 소시지, 4 뉘른베르크의 토종 식물군으로 만든 전통 비르(Beurre) 로즈 PDO 버터, 5 크로아티아의 손꼽히는 전통 음식인 코미자(Komiza) 플랫 브레드.

며, 상쾌하고 드라이한 그뤼너 펠틀러너(Grüner Veltliner) 화이트 와인과 함께 즐겼을 때 먹는 즐거움이 배가된다. 또 체코에서는 비옥한 땅에서 자란 신선한 채소로 전통 수프인 켈레니노바 폴레브카(Zeleninová Polévka)를 만들어 먹는다. 폴란드에서는 여러 유럽 문화권의 영향을 받아 속을 채운 양배추 잎 요리인 고웁프키(Gołąbki)와 키에우바사(Kiełbasa) 소시지 같은 다채로운 요리가 탄생했다. 한편 슬로바키아의 산악 지대에서는 치즈와 구운 베이컨으로 감싼 감자 덩굴링(Bryndzové Halušky)을 즐겨 먹으며, 이 요리는 같은 지역의 고유한 포도 품종으로 생산한 벨슈리슬링(Welschriesling) 와인과 완벽하게 어울린다. 슬로베니아의 소차(Sočá), 비파바(Vipava) 밸리는 피란스카 솔(Piranska Sol) PDO 소금, 슬로벤스키 메드(Slovenski Med) PGI 꿀 같은 특산품이 생산되는 미식 보고장이랄 수 있다.



서부 유럽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는 유럽에서 가장 비옥한 농지를 자랑하는 지역인 만큼 여러 식료품이 태동했다. 프랑스 미식 문화는 북동부의 버터, 남서부의 아르마냐크(Armagnac)와 트러플 같은 지역 특산물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 걸쳐 생산되는 수제 치즈, 와인으로도 대변된다. 벨기에에는 감자튀김과 수도원에서 빚은 맥주, 전설적인 프랄린으로 만드는 최고의 초콜릿으로 유명하다. 룩셈부르크는 토종 식물군으로 만든 전통 버터(Beurre) 로즈 PDO 버터, 주로 머스터드와 함께 먹는 녹인 치즈인 카흐케이스(Kachkéis)로 잘 알려져 있다. 네덜란드는 약간 짠맛이 나는 흰 아스파라거스 브라반체 발(Brabantse Wal) 아스페르주 PDO와 특 쓰는 맛이 일품인 구다 홀란드(Gouda Holland) PGI 치즈, 달달한 스트룹 와플이 대표 음식이다. 아일랜드 푸른 목초지에서는 최상급 목초 사육 소고기 PGI가 생산되며,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흑맥주가 생산되는 곳이기도 하다.

공식 웹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세요.

인스타그램



@euagrifood_korea

웹사이트



colours-by-europe.campaign.europa.eu

동부 유럽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동유럽 미식에는 속을 채운 양배추 요리, 파프리카를 곁들인 스튜, 코와츠키(Koľaczki) 쿠키까지, 다채로운 음식이 어우러진다. 향긋한 주니퍼베리 같은 흑해의 농작물이 훈제 햄과 소시지의 풍미를 돋운다. 불가리아에서는 유달리 향이 강한 허브가 잘 자라는데, 바질, 타임, 오레가노, 민트, 그리고 로즈 쟀은 오랜 시간 지켜온 전통을 자랑한다. 크로아티아의 코미자(Komiza) 플랫 브레드, 얇은 반죽 속을 근대와 양파로 채운 페이스트리인 소파르니크(Soparnik) 같은 베이커리류는 높이 평가받는 음식이다. 헝가리도 굴라쉬, 지역산 자두나 살구, 체리를 발효시켜 만드는 스피리츠인 펄린카(Pálinka) PDO로 못지않게 훌륭한 맛으로 칭찬받는다. 루마니아를 대표하는 음식은 아주 흥미로운 신맛을 자랑하는 수프인 치오르바(Ciorbă)인데, 레몬즙과 채소, 고기로 만든다. 루마니아에서 즐겨 마시는 페테아스커 레갈러(Fetească Regală) 와인과 훌륭한 조합을 자랑한다.

즐기세요, 유럽에서 왔습니다!

미식 여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풍성한 즐길 거리가 아직 더 남아 있기 때문이다. 9월 26일에서 29일까지, 안 쿠브레 동교점에서 전개하는 유로피언 푸드 익스프레스에 탑승하면, 저마다 독특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유럽연합 미식을 경험할 수 있다. '진짜 유럽의 컬러를 맛보다!' 캠페인은 다양한 토양과 원료, 생산 방식, 문화, 풍미에 기반한 유럽연합 식음료의 유구한 역사를 발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유럽연합이 한국에서 전개하는 캠페인이다. 공식 웹사이트에서 캠페인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공식 SNS를 팔로우하고 다가오는 이벤트에 관련된 소식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펼쳐질 #진짜유럽의컬러를맛보다 캠페인의 다채로운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에디터 윤자경



유럽연합(EU) 회원국

- 남부 유럽**
- 1 키프로스
- 2 이탈리아
- 3 포르투갈
- 4 그리스
- 5 몰타
- 6 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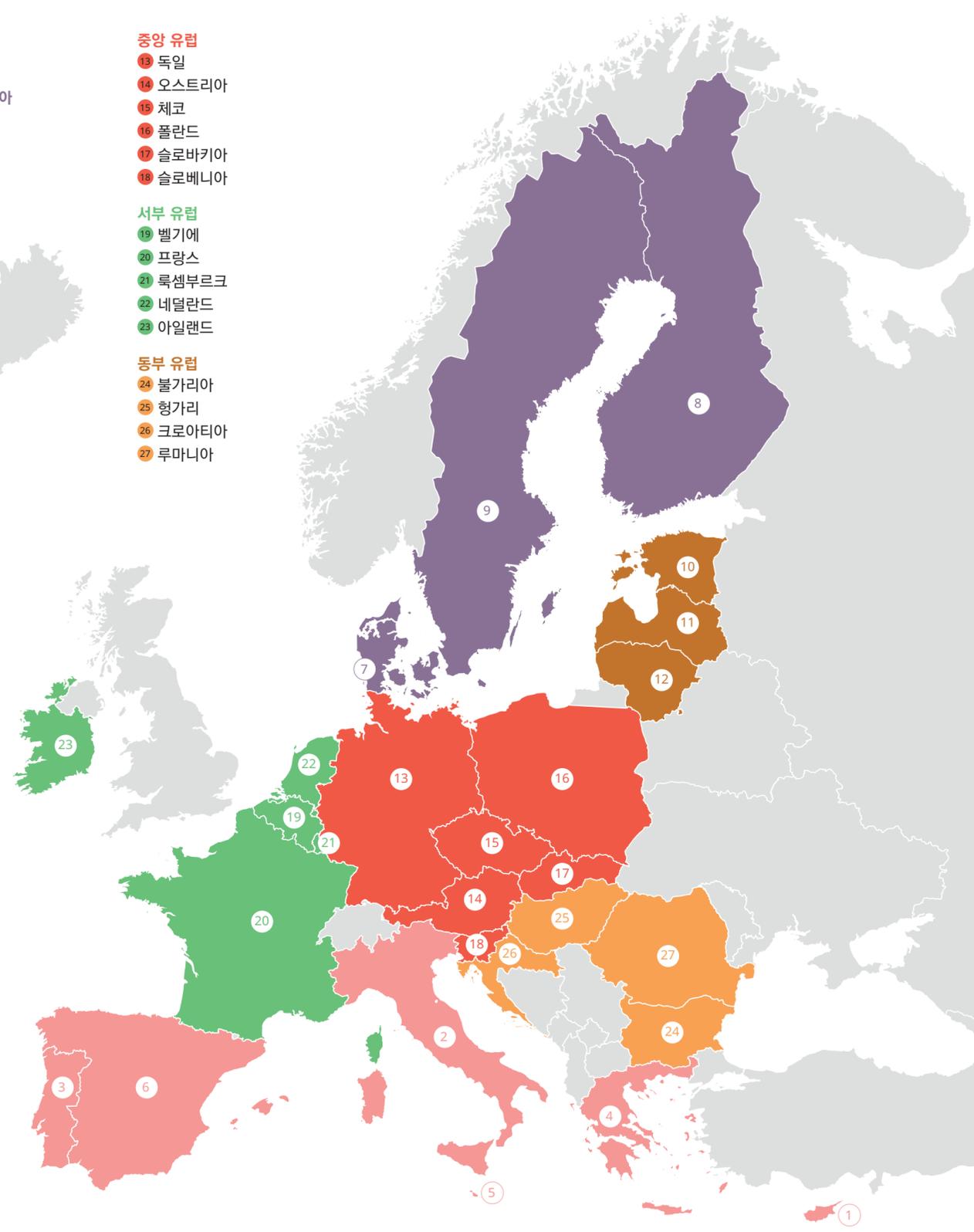
- 스칸디나비아**
- 7 덴마크
- 8 핀란드
- 9 스웨덴

- 발트해 연안**
- 10 에스토니아
- 11 라트비아
- 12 리투아니아

- 중앙 유럽**
- 13 독일
- 14 오스트리아
- 15 체코
- 16 폴란드
- 17 슬로바키아
- 18 슬로베니아

- 서부 유럽**
- 19 벨기에
- 20 프랑스
- 21 룩셈부르크
- 22 네덜란드
- 23 아일랜드

- 동부 유럽**
- 24 불가리아
- 25 헝가리
- 26 크로아티아
- 27 루마니아



Editor's Pick

지금은 피부가 가장 예민해지는 계절. 편집부가 엄선한 뷰티 리스트로 피부에 생기를 더해보자.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OH HYEUN SANG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디티크 로 파피에 헤어 미스트** 인크의 향을 매력적으로 표현한 향수로 파피에를 좀 더 자연스러운 무드로 즐길 수 있는 헤어 미스트다. 향기를 입히는 것뿐 아니라 건조한 모발에 뿌려 수분과 영양을 공급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콤팩트한 패키지로 매일 지니고 다니기에도 부담 없다. 30ml 가격 미정. 문의 02-3446-7494
_by 에디터 **성정민**

랑콤 제니피오 엘티미트 세럼 꾸준히 사용하던 세럼이 새로운 포뮬러로 출시되었다는 기쁜 소식.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 제품 대비 더욱 강력한 항산화 효과 덕에 더욱 빠르게 피부 리페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 또 부드럽게 발리며 피부 속까지 꽉 잡아주는 쫄쫄한 텍스처가 인상적이다. 30ml 12만6천원. 문의 080-835-0094
_by 에디터 **윤자경**

틀 포드 뷰티 아키텍처 소프트 매트 블러링 파우더 #알라바스터 누드 유분이 쉽게 올라오는 T존과 볼에 여러 번 덧발라도 답답해 보이지 않고, 모공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줘 깨끗한 피부를 연출해준다. 또 보송한 마무리감으로 하루 종일 산뜻한 기분을 선사한다. 9g 13만원. 문의 02-6971-3211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클라랑스 더블 세럼 G9 한 번 펴밍 시 물과 오일 제형이 황금 비율로 섞여 나와 자연스럽게 블렌딩된다. 한층 더 부드러운 텍스처는 피부를 유연하게 감싸며 민감한 피부 타입에도 편안한 사용감을 선사한다. 손에 쏙 들어오는 아름다운 곡선 패키지 디자인으로 자꾸 손이 가게 만드는 매력까지 갖췄다. 50ml 18만9천원. 문의 080-542-9052
_by 에디터 **성정민**

지방시 뷰티 랑메르디 튜베로즈 노와 랑메르디의 시그니처인 베타베르 에센스, 파출리 우디 베이스에 튜베로즈와 커피 빈 추출물을 더해 스모키하면서 매혹적인 향으로 데일리부터 특별한 날까지 사용하기 좋다. 50ml 18만4천원. 문의 080-801-9500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데코르테 루스 파우더 오후만 되어도 얼굴에 배어 나는 기름이 걱정이었었는데, 이 제품으로 피부 메이크업을 마무리했다니 신세계를 만났다. 집덕과 기미를 블러링하듯 커버해 피부 톤을 밝고 화사하게 조절하며, 탄력 있고 부드러운 텍스처가 매끄러운 피부를 오랜 시간 지속시켰다. 20g 6만7천원. 문의 080-568-3111 _by 에디터 **윤자경**

나스 익스플리시 립스틱 863 언어소라이즈드 나스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립스틱으로 실키 하면서 부드러운 텍스처에 클래식한 레드 컬러의 정석을 담았다. 민낫으로 외출 시 포인트로 발라주면 얼굴빛이 화사해져 손이 자주 가는 뷰티템 중 하나다. 3.8g 5만2천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신정임**

상테카이 치타 컬렉션 치타 아이 트리오 베이스로 바르기 좋은 매트 셰이드 브라운, 크림 바닐라부터 포인트로 재적인 시머 펄의 크리미 로지 모브까지 세 가지 컬러로 구성했으며, 은은하게 발색되어 데일리 아이 메이크업으로 사용하기 좋다. 2.5g 12만6천원. 문의 070-4370-7511
_by 인턴 에디터 **김보민**

드렁크 엘리펀트 씨루마 퍼밍 세럼 계절이 바뀌면서 칙칙해진 피부를 효과적으로 케어해줄 비타민 C 세럼. 탄력과 잡티를 케어해주고 피부에 영양과 수분을 보충해줄 플로레틴, 글루타치온, 디글루코실 갈락산을 담았다. 향료와 알코올을 배제한 덕분에 자극이 적다는 점도 만족스러웠다. 30ml 9만2천원. 문의 080-564-7700 _by 에디터 **신정임**

프레쉬 크림 앙시엔느 화이트 트러플 페이스 크림 가을이 다가오면서 보습과 안티에이징 케어를 동시에 해결해줄 크림 하나가 필요할 때 이 제품을 만났다. 고귀한 화이트 트러플 성분을 함유해서인지 며칠 사용하니 피부에 에너지가 생기는 듯한 느낌. 생크림 같은 부드러운 텍스처와 고급스러운 향도 심신 안정에 도움을 준다. 60ml 52만원. 문의 080-822-9500 _by 에디터 **성정민**

발몽 브이-리프트 크림 역시 계절의 변화는 피부가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듯, 부쩍 무식거리면서 노화의 징후가 눈에 띄었다. 무너진 피부 탄력을 끌어올려주는 크림으로 일주일 정도 꾸준히 사용했다니 피부결과 탄력이 한층 개선되었다. 끈적임 없이 사르르 녹아드는 멜팅 크림 텍스처는 피부에 오래도록 편안한 마무리감을 선사한다. 꾸준히 사용하면 건강하고 어린 피부를 되찾을 수 있을 듯하다. 50ml 53만원. 문의 070-4352-5203
_by 에디터 **윤자경**

샤넬 노와르 알뤼르 마스카라 27 아메시스트 퍼플 컬러를 좋아하는 에디터의 취향을 저격한 마스카라! 섬세한 브러시 팁이 내장되어 있어 한 번의 터치로도 우수한 컬링력을 자랑한다. 2~3번 속눈썹 뿌리부터 끝까지 올려주면 은은한 퍼플 컬러로 물든 분위기가 있는 눈매를 연출해준다. 6g 5만9천원. 문의 080-805-9638, www.chanel.com
_by 에디터 **신정임**

* 상용(가맹) 매장, 온라인, 공식몰(이벤트, 북한성), 리브(이벤트) 지점(가맹)



1 오메가 아메리카스컵 에디션 출시 오메가에서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아메리카스컵에서 공식 타임키퍼로 활약한 것을 기념해 시마스터 다이버 300M 아메리카스컵을 공개했다. 무광택 화이트 세라믹 소재 다이얼에 레이저로 파도 물결 패턴을 더했으며, 블루 컬러의 아메리카스 트로피 카운터 웨이트 크로노그래프 핸즈로 출시했다. 문의 080-500-1848

2 테일러메이드 2025 울 뉴 글로리 공개 골프의 기준을 높여온 테일러메이드에서 우먼스 골프 브랜드로 새롭게 탄생한 2025 울 뉴 글로리를 공개했다. 한국 여성을 타겟으로 출시한 2025 울 뉴 글로리는 브랜드의 시그니처 민트 블루 컬러의 클럽, 백, 액세서리 등 다채로운 골프 아이템을 선보였다. 문의 02-6410-8051

3 에르메스 뷰티 2024 F/W 리미티드 에디션 출시 에르메스 뷰티에서 2024 F/W 루즈 에르메스 & 레 메르메스 & 웅브르 데르메스 리미티드 에디션 컬렉션을 9월 30일에 선보일 예정이다. 에르메스 뷰티 출시 이래 최초의 루즈 에르메스, 레 메르메스, 웅브르 데르메스 조합으로 따뜻함과 차가움이 공존하는 블루 컬러의 매력을 담은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공개한다. 문의 02-310-5174

4 브레게 마린 레이디 9518 브레게에서 넓고 깊은 심해가 떠오르는 선바트 블루, 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의 포말을 모티브로 탄생한 실버로 구성된 다이얼이 돋보이는 마린 레이디 9518을 공개했다. 38시간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며, 8개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아워 마커와 50개의 다이아몬드로 완성한 베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문의 02-3497-1008

5 호간 여성용 86er 스니커즈 출시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스타일의 이탈리아 브랜드 호간에서 86er 스니커즈를 출시했다. 부드러운 가죽과 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한 86er 스니커즈는 상징적인 몬테나 플레오네 거리의 주 소고를 더해 포인트를 주었으며, 스포티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낸다. 문의 02-3479-1593

6 타사키 70주년을 맞아 새롭 게 선보이는 밸런스 컬렉션 타사키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해 기존 밸런스 컬렉션에 새로운 라인업을 선보였다. 밸런스 네오를

블록처럼 한 줄씩 쌓아 연출한 밸런스 빌드, 밸런스를 걸쳐 손을 맞잡은 듯한 모습을 연출한 밸런스 앰, 아이코닉한 밸런스 디자인을 수직으로 배치한 밸런스 플러스 등 다양한 신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3461-5558

7 태그호이어 아쿠아레이서 프로페셔널 300 & GMT 출시 스위스 럭셔리 워치메이커 태그호이어가 수심과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쿠아레이서 프로페셔널 300 & GMT를 출시했다. 하이엔드 무브먼트 제조사인 AMT와 공동 개발한 COSC 인증 TH-31 무브먼트를 탑재했으며,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한다. 데이트와 GMT 기능을 갖춘 2가지 모델로 선보인다. 문의 02-548-6020

8 지방시 뷰티 르 루즈 앙페르디 새틴 지방시 뷰티에서 첫선을 보이는 새틴 립스틱으로 르 루즈 앙페르디 새틴을 선보였다. 누드 컬러부터 강렬한 레드, 브라운까지 총 9가지 컬러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단 한 번의 터치로 맑은 광택과 선명한 컬러감이 6시간 동안 지속된다. 문의 080-801-9500

9 스와로브스키 하이퍼블라 스피ن 컬렉션 출시 모던 크리스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스와로브스키에서 하이퍼블라 스피ن 컬렉션을 공개했다. 이번 컬렉션은 심플한 디자인부터 화려하고 볼드한 이어링, 브레이슬릿, 링 등 다채로운 아이템으로 구성했으며, 그날의 무드에 따라 레이어링해 착용할 수 있다. 문의 1522-9065

10 라프레리 라이프 매트릭스 오프 레주베네이션 크림 출시 스위스 럭셔리 스킨케어 하우스 라

Showroom

프리레가 '라이프 매트릭스 오프 레주베네이션 크림'을 출시했다. 고농축 엑스클루시브 밸루 콤플렉스와 피오니, 카렌둘라 꽃 추출물로 구성된 엑스클루시브 매트릭스 콤플렉스를 함유해 피부 수분 장벽을 강화하고 탄력 있는 피부 컨디션을 선사한다. 문의 02-6390-1148

11 발몽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신규 매장 오픈 1백 18년 전통의 스위스 럭셔리 셀룰라 코스메틱 브랜드 발몽이 지난 12일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WEST 2층에 신규 매장을 오픈했다. 매장에서 신규 회원 가입 시 베이스 리추얼 샘플 5종을 증정한다. 또 구매 고객에게는 발몽 글로벌 베스트셀러 프릭 리뉴얼 팩 15ml를 증정하며, 9월 말까지 단독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문의 02-6905-3495

12 에트로 2024 프리플 컬렉션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에트로가 2024 프리플 컬렉션을 제안한다. 이번 컬렉션은 19세기 상류층이 사용했던 커튼, 벽지, 가구 등 인테리어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으며, 플로럴 패턴과 클래식한 페이즐리 문양으로 차분하고 사랑스러운 무드를 선보였다. 문의 02-3446-1321

13 몽블랑 익스트림 3.0 멀티 컬러 캡슐 컬렉션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몽블랑에서 대표적인 레드 컬렉션 '익스트림 3.0' 출시 100주년을 기념해 익스트림 3.0 멀티 컬러 캡슐 컬렉션을 출시했다. 특수 프린트 기술로 입체적인 패턴을 더하고, 라벤더 그레이 컬러로 포인트를 주었다. 시그니처 M LOCK 4810 버클을 장착한 백백, 미니 사이즈의 142 백 등으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877-5408



RALPH LAUREN

랄프 로렌 컬렉션 스토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3층 TEL. 02 3467 6560